

엘로스톤 온천물에 요리하던 가족 '유죄'



▲ 엘로스톤국립공원의 쇼순 간헐천. 사진=shutterstock

엘로스톤국립공원에서 온천물에 닭을 요리하려다 붙잡힌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엘로스톤국립공원의 쇼순 간헐천 물로 닭 요리를 하려던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원 관리인들은 누군가 냄비를 들고 '쇼순 간헐천'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닭 두 마리가 든 자루와 조리용 냄비를 발견했다. 닭 요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남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일행 10명이었으며 이들은 바로 퇴장 조치됐다.

폐쇄구역 출입 등의 혐의로 체포된 남성 중 두명은 이들 간 구금 후 벌금 540달러를 물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벌금 1,250달러와 감독 없는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세 사람의 공원 출입도 금지됐다. 법정에 선 남성은 재판부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미국 최대 국립공원인 엘로스톤국립공원에는 1만 개가 넘는 온천 및 간헐천이 형성돼 있다. 간헐천에서는 천연가스와 열수가 주기적으로 분출되며, 열수 온도는 섭씨 95도에 달한다.

높은 물 온도와 산성도 때문에 부상 위험도 높다. 지난 10월에는 3살 어린이가 열수 지역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만취해 엘로스톤 간헐천 주변을 거닐던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2016년에는 관광객 한 명이 온천에 빠져 숨졌다.

선글라스에 숨어 있는 바람의 증거

20대 한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을 눈치챈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시드니 킨슈(24)는 지난 2일 틱톡 영상으로 4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영상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스냅챗으로 보내온 셀카 사진 한 장을 배경으로 음악과 함께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다. 사진 속 남성의 선글라스는 운전 중에 셀카를 찍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성의 선글라스에는 낮선 여성이 핫팬츠 차림으로 창밖으로 내밀고 있는 맨다리가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킨슈는 선글라스에 비친 여성은 남자친구의 여동생



▲바람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긴 선글라스. 사진=TikTok(SydneyKinsch)

이나 사촌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 해당 영상과 함께 올린 짧은 글에서 시청자를 향해 "당신 남자친구의 선글라스에 비친 여성들을 확인해봐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또 "이 사진을 받은 뒤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밝히면서 "내가 그 사진을 강조해 그에게 보내자 그는 내게 미쳤다고 말하며 그 여성은 우리 두 사람 친구의 여자친구라고 말했다. 나중에 그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적어도 5명의 다른 여성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은 그녀가 틱톡에 공개한 유일한 게시물이지만, 조회 수는 10일 현재 266만 회를 넘어섰다. 그녀의 틱톡 계정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뒷마당에 재현한 디즈니랜드 롤러코스터

코로나19로 디즈니랜드가 문을 닫자 이곳에서 롤러코스터를 즐겨 타던 한 가족이 직접 집 뒷마당에 미니 롤러코스터를 만들었다.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살고 있는 선 라로첵 가족은 평소 알프스 마터호른을 모티브로 제작한 디즈니랜드 인기 롤러코스터 '마터호른'을 즐겨 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디즈니랜드가 폐쇄돼 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없게 되자 뒷마당에 마터호른 롤러코스터를 그대로 축소한 미니 롤러코스터를 건설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미니 롤러코스터 건설에 들어간 이들은 마침내 지난 7월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실제 모델을 그대로 축소해 만든 이 롤러코스터는 총 120m의 길이



▲선 가족이 뒷마당에 건설한 롤러코스터. 사진=유튜브 캡처(Magictecture)

로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50초 정도다. 물론 실제만큼 짜릿함은 덜하지만 가족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롤러코스터를 주도적으로 제작한 건축학과 대학원생인 선은 "어릴 때부터 디즈니랜드는 꿈과 사랑의 공간이었다."면서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곳이 폐쇄되자 평소 롤러코스터를 직접 만들고자 했던 꿈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꿔버렸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팬데믹의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생겨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